

# 살아난 광주·전남 주식거래

### 거래대금 8조 413억 전월 대비 4.8% ↑ ...3달만에 증가전환 밸류업 기대감에 AI반도체 관련주 강세... 거래 1위 삼성전자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가 증가전환하면서 침체됐던 지역 투자가 세 달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투자자들은 지난달 물가 상승세 둔화 기대감이 확산 및 투자 불안정성 완화에 따라 전월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4년 6월 광주·전남 지역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대금은 8조 413억원으로 전월(7조 6745억원) 대비 4.8% 증가했다.

지역 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이 늘어난 것은 지난 3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16.3% 증가한 이후 세 달만이다.

지난달 지역 투자자들의 매수·매도거래대금은 코스피에서는 증가했지만, 코스닥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코스피 매수거래대금은 2조 4071억원으로 전월(2조1512억원) 대비 11.9% 증가했고, 매

도거래대금 2조 5053억원으로 전월(2조937억원)보다 19.6% 늘었다.

코스닥에서는 매수거래대금이 1조 5728억원으로 전월(1조7070억원)에 견줘 7.8% 감소했고, 매도거래대금은 9.6% 감소한 1조 5560억원을 기록했다.

지역 투자자들의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이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것은 지난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낮아지는 등 물가 상승세 둔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거래가 활성화 됐고, 최근 AI반도체 관련주 강세가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대비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거래대금 비중도 늘었다. 매수거래대금 비중은 0.84%로 전월(0.81%) 대비 0.03%p 늘었고, 매도거래대금 비중은 0.86%로 전월(0.81%)보다 0.05%p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은 1달 전

보다 322억원(0.17%) 증가했는데, 이는 39개의 지역 상장법인 가운데 지역 전체 시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선전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전 시가총액은 지난 5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식으면서 곤두박질쳐 1조 913억원 하락했지만, 지난달 770억원 오르는 등 반등하고 있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주식은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의 '6월 광주·전남 거래대금 상위종목'에 따르면 지역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6711억원(매수 3052억원·매도 3659억원)으로 가장 많이 사고 팔았다.

이어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한미반도체 순으로 나타나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에서는 올해 1월부터 떠오른 바이오, 제약 관련주가 6개월째 강세를 이어갔다.

알테오젠(매수 1125억원·매도 1127억원)이 가장 많이 거래됐고, HLB, 삼천당제약 순으로 많이 거래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불법추심 피해자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시행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불법추심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지인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채무자의 가족·지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채무 당사자와 관계인 등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

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번호 사 무료 지원 신청' 메뉴 또는 금융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전화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또는 가족·지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증명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채무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KCC건설 '광주 상무 퍼스티엄 스위트' 분양

### 지하 3층~지상 34층 226세대

KCC건설은 4일 "광주 상무 퍼스티엄 스위트(광주시 서구 치평동 1208-5번지 일원) 견본주택을 5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 상무 퍼스티엄 스위트(조감도)은 광주시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스위첵' 브랜드로 지하 3층~지상 34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이다.

전용면적 84~140㎡의 아파트 226세대와 지상 1~2층에 73실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 ▲84㎡A 29가구 ▲84㎡A1 28가구 ▲84㎡A2 28가구 ▲84㎡A3 27가구 ▲84㎡B 62가구 ▲95㎡ 50가구 ▲140㎡P 2가구 등이며, 전 세대가 '포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됐다.

오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29일~31일까지 진행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거주자 가운데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및 거주무도 없고,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상무 퍼스티엄 스위트는 광주시청과 5.18 기념공원 인근, 옛 이마트 상무점 부지에 들어선다. 상무지구 주요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도보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광주시청과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주교통공사, 전남지방우정청, 광주가정법원, 광주서부경찰서 등 주요 관공사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단지 1~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 생활 편의성이 높다는 게 KCC건설 설명이다.

한편, 광주 상무 퍼스티엄 스위트 견본주택은 광주시 북구 중흥동 323-5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5년 2월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 아파트값 9주 연속·전남 0.06% 하락

이번 주 전남의 아파트매매가격이 전(前)주에 비해 0.0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여수와 광양 중심으로 가격 하락률이 높았고, 광주도 여전한 감소세를 보였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7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7월1일 기준) 전남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 대비

0.06% 하락하면서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광주는 이번 주 0.03% 하락을 기록하면서, 9주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광산구와 서구는 0.08%, 동구는 0.02% 감소를 기록했고, 남구는 0.1% 복구는 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주 아파트 전세가격 또한 전남은 0.03%, 광주는 0.07% 하락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캠코 G-JUMP 발대식. 캠코 광주전남지역분부는 4일 광주·전남 취업역량강화 대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G-JUMP)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광주지역 대학생 20여명과 차상위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G-JUMP는 캠코가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의 상호교류와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코스피 2820선 탈환 연고점 경신...시총 2307조 돌파

### 2년 5개월만에 최고치

코스피가 4일 삼성전자와 밸류업 관련주 강세 등에 힘입어 연고점을 경신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30.93포인트(1.11%) 오른 2,824.94로 마감, 지난달 20일 기록한 연고점(2,812.62)을 10거래일 만에 경신했다.

2022년 1월 21일(2,834.29)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지수는 전장보다 23.05포인트(0.82%) 오른 2,817.06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2307조 2790억원으로 지난 2021년 9월 7일(2306조 6370억) 이후 2년

10개월 만에 2300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0.2원 급락한 1,380.4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11억원, 1조 111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개인은 1조 4126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조 8102억원 순매수하며 지난 5월 7일(2조 3450억원) 이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 기술주 강세와 국제 금리 안정 등에 투자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밸류업 관련주가 장을 이끄는 흐름을 보였다.

전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7.3bp(1bp=0.01%포인트) 내린 연 4.364%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3.42% 오른 8만 46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4월 11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8만 4000원선을 회복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80포인트(0.33%) 오른 838.90으로 출발해 0.9% 넘게 오르기도 했으나 장중 오름폭을 줄였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3억원, 196억원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214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2조 9820억원, 9조 221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